

편편상片片想

나 운 영

영창피아노의 영꽃자와 나운영의 영樂자는 발음이 같다. 그래서인지 Young Chang과 마찬가지로 내 이름도 La, Un Young으로 표기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나의 이름은 Young이 아니라 Yung으로 표기한다. 왜냐하면 Un-Young이면 '젊지 않다=늙었다'라는 뜻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나는 작곡이 전공이기 때문에 우리 말의 악센트와 리듬에 대해서 남달리 좀 예민한 편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늘 부르는 '애국가'의 경우도 가사와 곡조가 맞지 않는 데가 있다. 즉, 이 곡에 있어서 최고음은 'Sol'이고 최저음은 'Mi'인데 동해물은 고음이고, 백두산은 최저음이다. 이것은 분명히 모순이다. 따라서 이 곡조를 살리려면 가사를 '백두산과 동해물이 닳고 마르도록'으로 고쳐야 할 것이다.

예부터 우리나라 사람은 영꽃자와 영樂자의 발음을 혼동하거나 아예 같게 발음하는 일이 많은데 발음을 잘못 하면 영창꽃씨가 영창樂씨가 되어 버린다.

일제시대 '박문서관'과 쌍벽을 이루던 책방이 '영창서관'이었는데 이것은 '永昌'이다. 따라서 '꽃'과 '永'을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인데 특히 내 이름에 있어서도 Un-Yung으로 표기해 주기를 바라는 동시에 '라운영'이 아니라 '나운영'으로, '羅雲榮'이 아니라 '羅運榮'으로 정확하게 표기해 주기를 바란다.

만약에 구름 운雲자를 쓰게 되면 나운규-나운몽-나운영이 한 형제처럼 생각되기 때문이다.

'영창피아노'의 창업주의 한 분이신 김재창(金在昌) 선생을 내가 처음 만났던 곳은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일본 동경의 피아노점에서였다. 변화가인 신주쿠(新宿)역 부근에 자리 잡은 꽤 큰 가게였는데 이곳은 '호루겔 피아노'의 대리점인가 특약점이어서 그랜드 피아노와 업라이트 피아노가 많이 진열되어 있었는데 김 선생께서 쇼팽 작곡의 흑건만으로 연주되는 연습곡 (Op. 10, No. 5)을 멋들어지게 연주하시는 것이었다.

그야 일본 음악학교 피아노과 출신이시니 당연한 노릇이지만 사장님이 소위 마네킹 피아니스트까지 겸하는 일은 지금은 물론 그 당시에도 대단히 드문 일이었기 때문에 특히 이 피아노점이 번창했던가 보다. 일본 동경 한 복판에서 피아니스트인 우리나라 사람이 피아노점을 경영한다는 것부터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었던가...

세월이 흐르고 또 흘러서 60년대엔가 외국제 피아노를 사기 위해 '영창피아노점'으로 김재창 선생을 찾으니 선생께서는 나에게 서독제 HAEGELE를 권하셨다.

그때만 해도 야마하, 가와이를 비롯해서 호루겔, 쉘멜, S 쉘멜, 오토타인 등등 외제피아노가 꽤 많았는데도 HAEGELE를 추천하시면서 — 서독 어느 촌 구석엘 가보니 자그마한 공장에서 이 피아노가 생산되는데 음색이 너무도 좋고 물건이 탄탄해서 들여오셨다는 것이었다.

나는 지금도 이 피아노를 가지고 있는데 가장 소리가 좋아서인지 이 피아노를 항상 즐겨 연주하며 또한 이 피아노를 사용하면 좋은 악상이 떠오른다. 그래서 이 피아노를 추천해 주신 김재창 선생의 고마움을 항상 잊지 않고 있다.

요즘은 웬만한 집엔 모두 피아노가 있어 매우 흔해졌지만 일제시대에는 야마하 피아노 중 가장 싼 것이 그 당시의 돈으로 5백 원이었는데 참으로 비싼 값이어서 군침만 삼켰던 일이 지금도 기억난다.

일본 유학을 떠나기 전 나는 집에 피아노가 없어 유치원이나 남의 집 것을 시간제로 세를 내서 얻어 쳤었는데 특히 추운 겨울에 난로도 없는 방에서 퐁퐁 언 손가락을 호호 불어가며 연습을 하는데 왜 그렇게도 시간이 빨리 가는지 별로 연습도 못하고 쫓겨나온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 피아노 때문에 얼마나 설움을 겪었는지 — 동경 유학시절에는 피아노를 전공하는 학생도 자기 피아노 없이 학교 것을 빌려 치는데 나만은 피아노를 하숙방에 들여다 놓고 공부를 해서 친구들의 부러움을 샀었다.

그러다가 귀국하기 직전에 피아노를 처분하고 그 돈을 서울로 보내 중고 피아노를 미리 사놓도록 단단히 부탁해 놓았는데 정작 돌아와 보니 영국제 CRAMER였다. 소리는 좋았으나 말하자면 Over Damper라는 구식舊式피아노여서 늘 불만이었는데 그래도 6·25사변 중 부산에 피난 갈 때 가지고 내려갔었고 이 악기로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를 비롯하여 「별과 새에게」, 「강 건너 간 노래」 등을 작곡하기도 했으니 나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역사적 보물(?)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지금 이것은 제주도에 있는 한국민속음악박물관에서 잠자고 있다.

모든 악기는 '음색'이 생명인데 다행하게도 Cramer나 Haegele이나 모두 음색이 좋으니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하다. — 어떤 피아노는 겉모양만은 최고급 가구 못지않게 아름다운데 정작 소리가 좋지 못한 것이 많으니 이것이 문제이다.

왜냐하면 음색이 나쁘면 연주할 맛이 안 나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사치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뭐니 뭐니 해도 음색이 좋아야 한다는 것이 첫째 조건이고 다음으로는 조율이다. 슈만이 지은 '음악과 음악가'라는 책 중 '음악의 좌우명'에 아래와 같은 글이 있다.

〈언제나 바르게 조율된 악기를 다룰 것〉

이 말은 지극히 당연한 말처럼 생각되나 우리가 피아노를 사용할 때에 조율에 대해서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 조율이 틀리는 피아노는 처음에는 귀에 거슬리게 들리나 참고 계속 사용하면 만성이 되어 버려 그다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는 법인데 이것이 이미 귀가 나빠졌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니 참으로 경계해야 할 일임을 새삼 깨닫게 된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김재창 선생은 참으로 선각자라고 생각된다. 리드 오르간에 있어서는 '근산 오르간'의 김응상, '아리아 오르간'의 하태봉, '백조 오르간'의 이재섭 선생이 먼저 머리에 떠오르나 피아노에 있어서는 오늘날 '영창'과 '삼익'이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늘 자랑하게 되는데 이 모두가 하루아침에 되어진 일이 아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선각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다.

이토록 우리나라 피아노 제품이 국제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이때에 국내에서는 거의 한 집(?) 건너 피아노가 있고 피아노학원도 많고 피아노교사, 교수도 많은데 비해 소위 '콘서트 피아니스트'가 몇 사람(?) 안되고 특히 '남성 피아니스트'가 희귀한 것이 무슨 까닭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즉, 음악대학 피아노과 졸업생이 매년 쏟아져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모두 무엇을 하고 있는가... 독주자는 물론 반주자조차 수적으로 절대 부족한 우리나라의 기현상을 무엇으로 대변할 수 있을까...

음악에 있어서 피아노 인구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더욱이 바이올린에 비해 피아노 전공자가 또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도 정경화 수준의 세계적 대연주가 피아노 분야에서 나오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는 피아노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만 그 책임을 전가할 문제가 결코 아니라고 나는 생각한다.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심각한 문제라고 나는 생각한다.

끝으로 작곡을 하든 성악을 하든 현악, 관악을 하든 일단 피아노를 공부하는 것은 하나의 필수과정이니 앞으로 품질 좋은 피아노가 더욱 많이 생산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비단 나뿐만이 아니리라.

〈격월간 영창, '89 4/5월호〉